



대전, 빛의 도시 중심에 선다

대전발전연구원 빛도시 관계자 예방



질부나 회장(가운데)과 알렌기요씨(왼쪽)와 함께한 이창기 원장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리옹시 및 세계 빛의 도시 연합(LUCI)의 초청으로 프랑스 리옹시를 방문해 질부나(리옹시 제1부시장) 루치회장을 만나 도시야간경관에 대한 상호정보 공유와 국제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 하였다

질부나 회장은 대전시가 준비하고 있는 응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계획에 큰 관심을 갖고 대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금년 12월 리옹시에서 개최되는 빛의 축제에 대전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또한 에펠탑과 천문문의 경관조명을 디자인한 세계적 조명디자이너 알렌기요씨는 “대전이 LED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신조명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평가 속에 대전이 빛의 도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맡아줄 것을 약속했다.

이에 이창기원장은 전직장관급 모임인 미래대전기획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 하면서 대전이 빛의 도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j

방법 및 방재를 위한 안전사회 디자인 포럼 개최

CPTED와 도시방재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 주최, 대전발전연구원·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재정보통신 지역혁신센터, (주)두민커뮤니케이션 공동주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후원으로 11일 오후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규모의 방법 및 방재를 위한 안전사회 디자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급격히 늘어나는 자연재해?도시재난과 사회범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방대한 방법 및 방재 분야에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도시방재를 중심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방법 및 방재담당 공무원, 방법 및 방재 관련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건축물의 복잡화 지하공간의 확대 등으로 새로운 재난 환경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어 도시와 건축물의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도 선진화된 과학적인 기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하는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방법분야에서는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임윤택 교수,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 연구실 이형복박사, 방재분야에서는 국립방재연구소 도시방재팀장 김현주 박사, (전)국립방재연구소장 이었던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노삼구 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 이어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주제로 바람직한 안전사회의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충천(대전광역시 시의회의원), 박월훈(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 박종원(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장), 권영진(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현태(목원대학교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장), 박형신(중부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영식(이화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염홍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최근 일본의 쓰나미와 작년 부산해운대 초고층 건물 화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범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큰 만큼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록 다른 분야의 내용이지만 범사회적으로 대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행사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창기 원장은 우리의 주거형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법창이 오히려 화재시에는 탈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국의 선진사례를 들면서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j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기획세미나 개최”

영국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전체적인 틀과
사람(이용자) 중심의 재생 사업 강조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5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대전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대전시 도시재생 기획세미나: 영국 도시재생사업'을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자인 양도식 박사(현 영국 도시건축연구소 Urban Plasma Ltd 소장, 런던대학(UCL)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튜터로 활동 중) 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에서 양도식 박사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영국 노동당의 도시재생 정책을 소개하였다. 양 박사는 영국 도시재생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이해, 도시·타운의 관리와 거버넌스,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성공적 도시재생의 지속적 유지 등 5가지 특성을 세부적으로 구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중부도시인 버밍엄, 맨체스터, 셰필드, 리버풀, 리즈, 뉴캐슬 힐 그리고 브리스톨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양도식 박사는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연구결과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이해 위에 도시재생의 수행역량의 강화, 도시계획차원의 효율적 제도적 보완, 지자체 중심의 파



트너십 그리고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세미나를 개최한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고민한 영국의 사례가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대전시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의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j

“2011년 도시기반연구실 생태환경팀 환경관련 시설견학 프로그램 실시”

쓰레기를 열에너지로 전환·활용하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방문



도시기반연구실 생태환경팀은 2011년 환경관련 시설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차 신재생에너지타운(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월 13일), 2차 대전자원순환시설(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5월 11일)을 방문하였다.

이번에 2차 견학지로 방문한 환경에너지사업소는 대덕구 신일동 대덕사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9천평의 부지에 총 400톤/일 규모의 스토커식 소각로를 기동하여 회수한 열을 인근 공장 및 지역난방에 공급하고 있다. 견학 프로그램은 영상자료 시청과 질의응답, 크레인 조정실과 중앙제어실(사진)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견학을 통해 생태환경팀 연구진들이 현 대전시의 폐기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j

“N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대청호 오백리길 한마음 걷기 대회 개최”



NH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대전발전연구원의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가 지난 6월 1일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 주최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서 이백리에 위치한 이지당 까지 약 7km 구

간을 약 3시간에 걸쳐 걸었으며, 저녁만찬 자리를 통해 대전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원 간 교류활성화와 대전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등 함께 동반 성장을 위한 발전적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j

“녹색생태관광사업단 선진사례답사를 위한 해외출장”

호주 시드니 블루마운틴, 뉴질랜드 밀포트 사운드 방문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은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선진사례답사를 위해 2011년 4월 14일~5월 23일(10일간) 호주 시드니의 블루마운틴과 뉴질랜드의 마운트 쿡 국립공원과 윈스턴,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밀포트 사운드 등을 방문하였다.

1 호주 블루마운틴(Blue Mountain)

시드니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근교 휴양지 카툼바(Katoomba)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경치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국립공원으로 협곡, 폭포, 숲이 어우러져 있다. 유칼리 나무 등 숲이 울창한 숲속에 산책로의 걸으면서 맑은 공기의 맛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 숲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산책로 곳곳에 안전 펜스가 있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를 피할 수 있는 간이 쉼터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숲의 자생 식물 및 역사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볼 수 있다.



산책로 간이 쉼터

2 뉴질랜드 Queen Town Gardens의 Frisbee Golf 코스

프리즈비 골프는 골프와 흡사하지만 클럽이 없이 공대신 프리즈비(디스크)를 던져서 홀 안에 들어가면 된다. 골프와 같이 정교한 퍼팅이나 드라이브 샷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으며, 공원에 설치되어 비용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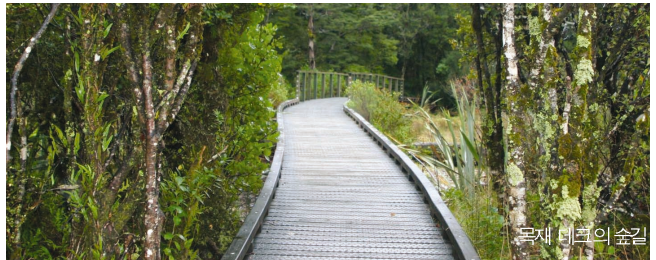
프리즈비(디스크) 골프 골프링 규칙은 똑같으며, 초보자, 남녀노스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우리시에서도 계족산 월평공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장소에 설치에 대한 검토도 해볼직하다고 생각하였다.



Frisbee Golf Hole

3 뉴질랜드 밀포트사운드 Foreshore Walk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Milford Sound Fiordland 근처의 Milford Foreshore Walk를 걸으면서 주변의 풍광이 너무나 잘 조화된 숲길이다. 곳곳에 현재의 위치 및 안내 표시판이 잘 정비되어 있다. 또한 안전을 고려한 숲길 조성, 시즈찌기 좋은 장소에는 포트 존이 설치되어 있다.



목재 비크의 숲길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시간

4 뉴질랜드 Rotorua의 The Red Woods

산책 및 등산 코스가 있는 Red Woods에는 30분, 1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리는 다양한 길이 마련되어 있다.

숲의 나무가 너무 커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들게 하였다. 숲속에서 산책 및 조깅을 비롯하여 산악자전거 전용길도 마련되어 있다.



레드우드 숲길에서



색갈멜 산책로 안내판

2011년 제1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 개최

성인지적관점의 사회적 확산과 공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5월 27일(금) 15시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종사자, 여성복지사업기관 및 여성복지 지원기관 종사자, 공무원, 여성에 관심 있는 대전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1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이번 2011년 제1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김희은)의 “성주류화와 성인지력 그리고 정책”이라는 주제로, 생활 속의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백중섭)와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이연복)의 지정토론과, 공주대학교 영상보

건대학 간호학과 교수(안정선)의 진행으로 포럼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대하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백중섭)와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이연복)의 지정토론과,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간호학과 교수(안정선)의 포럼 진행으로 포럼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한 여성단체 및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여성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지속성 있는 피드백 공유, 그리고 여성정책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교환 기회의 확장 등이 제안되었다. j



대전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육성의 방향과 과제

황혜란 도시경영연구실장 / 강영주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최근 녹색성장은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을 탈피한 저탄소사회 실현을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환경적 측면의 문제의식과 함께 녹색사업회를 통하여 미래성장기반을 창출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적인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정책 이젠더로 부상하고 있음

대전은 녹색기술부문에 다양한 연구개발활동 주체와 인프라, 기술의 집적지로서 국가 녹색기술발전을 위한 27대 중점 육성 기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 녹색기술의 개발 및 확산이라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대전의 녹색기술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현재 전체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갖는 원천기술 생산과 확산이라는 역할과,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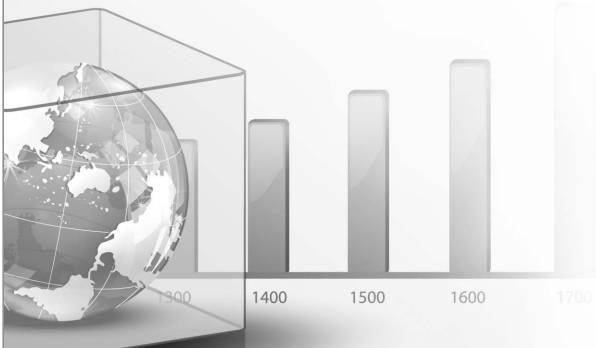
2 대전 녹색기술산업 시스템 특성

대전 녹색기술 자원 현황

현재 대전에서 녹색기술관련 연구기관은 <그림>과 같음. 부문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에너지원 및 신재생 분야, 온실가스저감 및 배출억제 분야(사후처리),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제고 분야 등 녹색기술 전 분야를 포괄하여 원천기술 개발과 확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녹색 기술 부문	에너지원 및 신재생	온실가스저감 및 배출억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제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연료전지, 에너지소재, 폐기물 에너지, 태양광, 청정화석연료		제로솔라하우스
한국화학연구원	태양연료에너지	축매분해공정, 바이오부탄올, 메탄올 제조기술	
KIGAM	청정대용량저수저원	CO2포집 및 저장	패시브 활용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태양광, 태양전지, 무전원 SoC		에너지 절감 IT기술, 그린컴퓨팅, 저탄소형 온라인 인프라
KIMM 한국기계연구원		플리즈미 융합자원 환경기술, 친환경 저탄소엔진	광전에너지 고효율 기술
KRISSE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온실가스배출량저감, 차세대 원자력 감시시스템	오존, VOC측정 등 유해성분 측정등
KRISS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매스, 녹색에너지유용유전자		

그림 1 |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녹색기술 부문별 연구개발활동



대전 민간부문 녹색기술산업 활동

최근 녹색기술과 관련된 기업활동이 증가하는 추세

- 대전의 녹색기업군은 크게 신재생에너지원 기술,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업, 라이프케어 소재 분야의 세 부분으로 구성
- 웅진에너지 태양전지 원료 생산공장,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에스에너지, 태양광 전지 모듈을 생산하는 대만 판지 그룹,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소 기업인 케이에너지, 그린카 관련 기업으로서 한리공조, 라이프소재 관련 기업인 유니레버 코리아 애경산업, 코오롱제약, 한올제약 등의 선도기업

대전의 혁신클러스터는 선도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전통적 기업중심형 클러스터와는 달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생산된 연구성과 혹은 이곳에서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창업한 첨단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집적이 특징. 녹색혁신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선도기업의 입지보다는 첨단기술기반 기업의 창업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

대전 녹색기술산업 SWOT 분석

풍부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및 주변 인접지의 기초 연구기반의 확대를 통해 대전 권의 개발환경 개선이 필요함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인프라 등 혁신역량 풍부 · 국가 자원의 녹색 원천기술 공급을 통한 전통 녹색기술분야 한계 돌파 · 특구 통한 신기술사업화 경험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기업의 영세성 · 기업의 수도권 입지 선호 · 기존제조업 기반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녹색기술산업 육성 의지 · 기초연구기반의 확대 및 인접지 연계산업구조 형성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지속 · 수도권 중심의 개발환경

그림 21 대전 녹색기술산업 SWOT 분석

3 대전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육성의 방향성 및 주요 분야

대전의 녹색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향

대전 녹색혁신클러스터의 현재 역량과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대전 녹색혁신클러스터 육성의 전략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현재 대전 녹색혁신클러스터의 시스템적 특성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는 녹색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를 지역내 경제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원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주된 방향. 이를 통해 현재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녹색기술자산을 사업화 가능한 기술로 가치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녹색 신산업 기반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제조업에 기초한 여타 클러스터는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나 오염물질 사후처리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전략적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그러나 기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녹색 연구개발 역량과 지적자산에 특화된 대전과 같은 연구개발집약형 클러스터에서는 기술자원의 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를 성장시키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 이를 위해 녹색기술 사업화 잠재성을 높여줄 녹색융합기술의 창출, 녹색 신성장 산업과 지역 녹색기업의 기반 확대 등을 전략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음

대전의 유망 녹색기술산업

성장성(시장성과 파급효과) 및 지역자원,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육성 분야를 도출할 수 있음

지역성(지역자원 및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수송시스템 · 신재생(조력, 폐자원) · 고도물처리 · IT융합 (LED, 스마트그리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 · 나노융합 · 첨단의료 · 탄소저감에너지(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예측 및 영향평가 · 고효율 수소제조 및 저장 · 탄소저감(CO2 포집, 저장,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시티 (생태공간조성, 도시재생기술)

그림 31 대전의 유망 녹색기술산업의 성장성

4대 전략 분야: 성장성(시장성 및 파급효과)과 지역성(지역보유 자원 및 의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전략 분야를 도출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
 - 나노융합 (나노기반 첨단소재)
 - 첨단의료 및 제약(첨단의료, 바이오의약품)
 - 탄소저감에너지(원자력)
- ※ 대전시 4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IT산업의 경우 녹색기술산업과 연관성이 강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로 포함되고, LED, 스마트그리드 등은 지역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으로 신성장 분야로 분류함

4대 신성장 분야: 4대 전략 분야 외에 대전에 연구개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수 있는 4대 신성장 분야를 도출

- IT융합(LED, 스마트그리드 등)
- 그린수송시스템(전기차)
- 그린시티(생태공간조성, 도시재생기술)
- 물산업(고도물처리 등)

4 대전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육성의 비전 및 목표

비전

녹색기술산업 허브도시 대전

녹색산업의 기초원천 지식의 전국적 확산과 녹색산업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반기술 제공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기여

목표

녹색융합 연구역량강화

대덕의 연구개발집약형 클러스터의 성격에 부응하여 녹색융합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 저수지로서의 역할 수행

녹색산업 원천기술사업화

녹색산업은 초기 성장단계로서 본격적인 사업화 보다는 현재 생산되는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산업 육성이 선결되어야 함

녹색융합 신산업 육성

대덕에서 생산되는 녹색산업 관련 원천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녹색기술기반 기업군을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신성장 동력화 하는 것이 필요

목표 별 전략

녹색융합연구역량 강화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녹색융합 연구역량 고도화와 녹색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녹색기술 저수지로서의 역할
- 지역내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녹색 연구역량의 저변확대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의 네트워킹 활성화

녹색산업원천기술사업화

- 녹색분야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업화 단계까지 지원하는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제를 구축
- 녹색분야 원천기술의 제품화를 시험,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 강화와 테스트베드 사업 지원

녹색융합신산업 육성

- 분야별 녹색기술산업단지 조성
- 녹색기술 산업분야첨단벤처생태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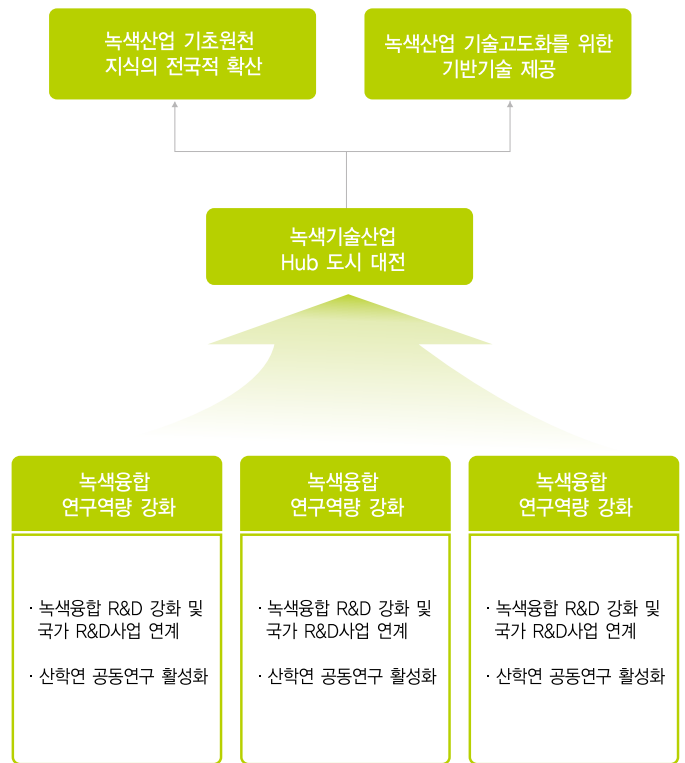


그림 4 | 대전 녹색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비전, 목표 및 전략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한파와 구제역이 진정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호전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으며,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경기·고용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임. 다만, 물가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2011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3월까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정세 변화, 일본 원전사태, 주요국 재정불안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역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반 하에 경기와 고용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거시 및 미시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고유가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

-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강국면을 보였으나, 2011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3월까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생 산

- 2011년 3월, 산업활동은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명절연휴 요인이 해소되면서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도 소폭 증가에 그쳐, 지난달에 비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5개월째 호조세이다.

소 비

- 2011년 3월, 민간소비는 그간 소비를 제약했던 한파 및 구제역이 진정되고 신차출시효과가 반영되면서,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에너지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고 용

- 2010년 3월, 제조업부문의 활발한 생산활동, 수출호조, 구제역 진정 등의 요인에 힘입어 전월대비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 및 실업률이 감소·하락하여 고용상황은 전월에 비해서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실업자와 실업률은 증가·상승하여 부진한 상황이다.

물 가

- 2011년 4월, 소비자물가는 원자재가격의 강세로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집세 및 개인서비스의 오름세가 지속되었으나, 신선식품 중심의 농산물 가격이 큰 폭 하락하여 전월대비 소폭 상승함으로써 물가가 진정 기미를 보였다.

금융 시장

- 2011년 4월 중 금융시장은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유입, 달러화 약세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대 외 거래

- 2011년 3월 고유가로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수입이 증가하였고, 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무역수지 규모는 최근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흑자폭은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0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주 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확정에 따라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 일 시 : 2011. 6. 9(목) 11:00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
- 주 최 : 대전발전연구원

02

2011 아시아 5개국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주 제 : 지역간 상생전략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Mutual Benefitting Strategy of Urban and Rural Area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일 시 : 2011. 6. 10(금), 10:00 ~ 18:20
- 장 소 : 한남대학교 대학교회
- 주 관 :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충남발전협의회,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03

여성가족정책센터

제3차 대전가족공동체포럼

- 주 제 : 여성(아동)의 안전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포럼
- 일 시 : 2011. 6. 22(수), 14:00~17:00
- 장 소 : 대전 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
- 주 최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04

근린자치와 커뮤니티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주 제 : 한·중·일 사례를 통해 근린자치와 커뮤니티 정책의 활성화방안모색
- 일 시 : 2011.6.28(화) 13:20~19:30
-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 주 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학연구회,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